



# 2018 캐나다, 멕시코 **신선품목** 시장분석

[ 배, 파프리카 ]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 캐나다 신선 배 수출확대 방안

—  
1

2

## 캐나다, 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여건 조사

—  
31



# 1 캐나다 신선 배 수출확대 방안

- I. 시장현황
- II. 소비현황
- III. 관련정책 및 인증
- IV. 한국산 배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 방안



## Chapter

# 1 캐나다 신선 배 수출확대 방안

I. 시장현황 .....	4
1. 생산현황 .....	4
2. 수입현황 .....	9
II. 소비현황 .....	12
1. 캐나다 소비규모 .....	12
2. 소비동향 .....	13
III. 관련정책 및 인증 .....	16
1. 검역 요건 .....	16
가. 배 관련 수출요건 .....	16
나. 한국산 배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	17
2. 수입규제 .....	19
IV. 한국산 배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 방안 .....	20
1. 북미지역 신선 배 시장 비교 .....	20
가. 캐나다와 미국 시장 비교 배경 .....	20
나. 수입현황 비교 .....	21
다. 소비현황 비교 .....	23
라. 동양 배 마케팅현황 비교 .....	25
마. 수입규제 비교 .....	26
2. 한국산 신선 배 캐나다 진출방안 제언 .....	28

## 1. 생산현황

- 캐나다의 배 생산량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소폭 상승함
  - 2017년 캐나다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9,676톤을 기록함
    - 캐나다의 배 재배면적은 2013년 9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2013년 대비 9.4% 감소한 835㏊로 집계
  - 부란병(fire blight) 발생이 캐나다 배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부란병은 주로 사과와 배 나뭇가지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 포자가 침투하여 감염되는 병으로, 병균이 침입하면 가지가 약해지고 나무가 전체적으로 마르고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과실이 자라지 않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됨
  - 더불어 배 생산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캐나다 농가는 블루베리, 사과 등 수익성이 높은 과일 및 채소 재배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은 더욱 하락함
    - 캐나다에서 배 생산 시 요구되는 재배 및 보관 조건이 타 작물 대비 까다로워 상품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수요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

〈표 1-1〉 캐나다 배 생산량 및 재배면적(2007~2016년)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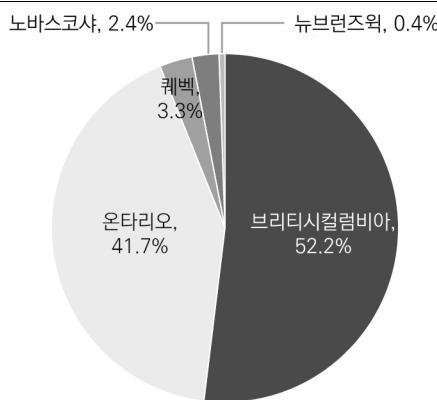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량	10,293	9,154	8,954	8,285	9,676
재배면적	922	912	902	894	835

\* 출처: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배의 주요 재배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州, 온타리오(Ontario)州, 케벡(Quebec)州, 노바스코샤(Nova Scotia)州 등임
  - 캐나다산 배 중 약 93.9%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재배됨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 내 배의 수확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전체 배 수확량의 52.2%(5,067톤)를 차지함
    - 동년 수확량 2위 지역인 온타리오주의 배 수확량은 전체의 41.7%인 4,048톤을 기록함
      - 온타리오주는 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재배면적은 465ha(55.5%)로 집계
  - 캐나다산 배는 주로 8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됨

〈표 1-2〉 캐나다 배 산지별 수확량 비중(2017년)

(단위: %)



\* 출처: 캐나다 통계청

〈표 1-3〉 캐나다 배 산지별 재배면적, 수확량(2017년)

(단위: ha, 톤, %)

순위	지역	재배면적	비중	수확량	비중
-	합계	838	100.0	9,706	100.0
1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249	29.7	5,067	52.2
2	온타리오(Ontario)주	465	55.5	4,048	41.7
3	魁北克(Quebec)주	72	8.6	318	3.3
4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45	5.4	230	2.4
5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	7	0.8	43	0.4

\* 주 1: 비중은 전체 수확량 대비 지역별 수확량 비중

\* 주 2: 퀘벡주는 2016년도(최신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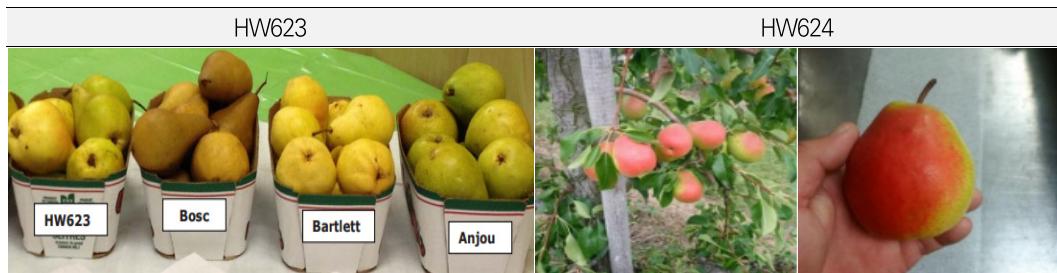
\* 출처: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에서는 서양 배(European pear)와 동양 배(Asian pear) 모두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새로 개발된 품종으로 콜드스냅 배(Cold Snap)가 있음

- 서양 배는 일반적으로 호리병 모양이며 매끈한 껍질과 부드러운 과육이 특징인 반면 동양 배는 구형이며 껍질의 촉감이 비교적 거칠고 과육이 아삭함
  - 서양 배는 껍질이 녹색일 때 미리 수확하여 상온에서 숙성시키지만 동양 배는 과실이 완전히 익은 다음 수확함
- 캐나다에서 주로 재배되는 서양 배 품종으로는 바틀릿 배(Bartlett), 보스크 배(Bosc), 안주 배(Anjou pear)가 있음
  - 특히 바틀릿 배는 북미 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품종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남부 등에서 주로 생산됨
- 서양 배인 콜드스냅 배는 2016년 온타리오주의 신선품목 협동조합인 바인랜드 그로워스(Vineland Growers)와 캐나다 농업농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의 협업으로 개발됨
  - 다른 품종과 달리 비교적 보관기간이 길어 캐나다산 배의 제철인 가을이 지난 뒤 이듬해 초봄까지 캐나다 전역에 유통되고 있음
  - 바인랜드 그로워스와 캐나다 농업농식품부는 콜드스냅 배 외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배 품종(HW623, HW624)을 개발 중이며 2021년에 2개의 신품종을 출시 할 예정임

- HW623 품종은 보스크, 바틀렛, 안주 배 품종에 비해 향이 더 짙고 과즙이 많으며 HW624은 중대형 크기로 신맛이 가미된 품종으로 알려짐
- 해당 협회와 기관은 배 품종 개량을 통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캐나다 내 배 생산량을 회복하고자 함

〈그림 1-1〉 캐나다에서 개발 중인 신규 배 품종



\* 출처: 바인랜드 연구혁신센터(Vineland Research and Innovations Centre)

- 캐나다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동양 배는 신고 배(Sinko asian pear), 신세이키 배(Shinseiki asian pear, 켄코 배(Kenko asian pear) 등이 있음
  - 동양 배는 오리엔탈 배(Oriental Pear), 나시 배(Nashi pear) 또는 사과 배(Apple pears)라고 불리기도 함
    - 동양 배는 껍질이 두껍지 않아 과일 표면에 상처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재배 및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표 1-4〉 캐나다 주요 재배 품종

구분	품종	사진	내용
	비틀릿 배 (Bartle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에서 열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변함</li> <li>• 다양한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함</li> <li>• 캐나다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온타리오(Ontario)주에서 주로 생산됨</li> <li>• 상업 통조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종</li> <li>• 주로 9월에서 11월 사이 유통되며 보관기간은 1~2개월 정도</li> </ul>
	보스크 배 (Bo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의 목이 비교적 긴 품종으로 껍질의 색은 갈색 또는 녹색임</li> <li>• 과육은 흰색으로 과즙이 많음</li> <li>• 비교적 따뜻한 서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됨</li> <li>• 10월에서 12월 사이 많이 유통되며 보관기간은 최대 4개월임</li> </ul>
서양 배	안주 배 (Anjou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껍질은 녹색으로 바틀릿과 달리 익어도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음</li> <li>• 바틀릿 품종보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10월에서 5월 사이 유통됨</li> </ul>
	콜드스냅 배 (Cold S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에서 독점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 질병에 대한 내성이 높고 다른 품종보다 저장 기간이 길다는 장점 보유</li> <li>• 바틀릿 배와 마찬가지로 9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된 뒤 냉장 보관했다가 2월에서 3월까지 유통됨</li> <li>• 2016년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수확된 품종으로 질병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농가에서 재배를 늘리는 추세</li> </ul>
동양 배	신고 배 (Shinko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껍질은 황갈색이며 질감이 거칠</li> <li>• 크기는 중형에서 대형 사이로 식감이 아삭아삭함</li> <li>• 9월 경 수확</li> </ul>
	신세이키 배 (Shinseiki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껍질은 녹색 또는 갈색</li> <li>• 중형 품종으로 식감은 타 품종에 비해 부드러우며 사과처럼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li> <li>• 캐나다에서 재배되는 동양 배 중 가장 빨리 수확되는 품종으로 7월 이후에 수확</li> </ul>
	켄코 배 (Kenko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껍질은 황금빛을 띠는 갈색이며 질병에 강한 품종으로 재배하기 쉬움</li> <li>• 9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됨</li> </ul>

\* 출처: 온타리오주 농림부([www.omafra.gov.on.ca](http://www.omafra.gov.on.ca)), 캐나다 JC Bakker and Sons Ltd. 종묘장 홈페이지([www.jcbakker.com](http://www.jcbakker.com)), 캐나다 Whiffletree 농장 홈페이지([www.whiffletreefarmandnursery.ca](http://www.whiffletreefarmandnursery.ca)), 캐나다 Springtree 농장 홈페이지([www.springtreefarm.ca](http://www.springtreefarm.ca)), 캐나다 Green Barn 농장 홈페이지([www.jardinjasmin.com](http://www.jardinjasmin.com))

## 2. 수입현황

□ 캐나다 배 수입액 및 수입량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7년 캐나다 배 수입액은 8,164만 달러(한화 약 873억 1,400만 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7.3%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6만 2,833톤으로 전년대비 약 5.6% 하락함

〈표 1-5〉 캐나다 배 최근 5개년 수입규모(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95,878	99,420	94,318	88,069	81,640
수입량	70,732	73,873	71,333	66,565	62,833
단가	1.36	1.35	1.32	1.32	1.30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Global Trade Atlas

□ 캐나다의 주요 배 수입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며, 한국은 7번째 국가로 비교적 비중이 낮은 편임

-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주요 3개국이 캐나다 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임
  - 2017년 미국산 배는 전년대비 약 7.7% 감소한 4,454만 달러(한화 약 476억 3,550만 원)를 기록하였음
  - 2위 수입국은 아르헨티나로, 2017년 약 1,255만 달러(한화 약 134억 2,223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 수입의 15.4%를 차지
  - 동년 중국은 캐나다의 배 수입 3위 국가로 1,166만 달러(한화 약 126억 1,905만 원)를 수입하여 14.3%를 차지함
- 스페인산 배 수입은 2017년, 전년대비 128% 증가함
  - 이는 캐나다와 EU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체결에 따라 모든 과일과 채소의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배 수입국으로 수출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한국산 배 수입은 전년대비 약 11.1% 증가한 112만 달러(한화 약 11억 9,780만 원)로 전체의 1.4%를 차지

〈표 1-6〉 캐나다 배 주요 수입국가(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71,333	94,318	66,565	88,069	62,833	81,640	-5.6	-7.3	-	-
1 미국	38,438	51,754	34,988	48,277	33,625	44,538	-3.9	-7.7	54	55
2 아르헨티나	11,690	14,940	10,233	13,444	9,163	12,554	-10.5	-6.6	14.6	15.4
3 중국	11,477	13,531	11,720	12,390	10,772	11,662	-8.1	-5.9	17.1	14.3
4 남아프리카공화국	3,853	5,119	4,772	6,163	5,076	6,569	6.4	6.6	8.1	8.1
5 포르투갈	1,475	1,781	1,158	1,632	1,502	1,982	29.7	21.5	2.4	2.4
6 호주	1,314	1,776	1,000	1,438	859	1,189	-14.1	-17.3	1.4	1.5
7 한국	335	1,001	327	1,004	502	1,115	53.3	11.1	0.8	1.4
8 칠레	1,842	2,873	1,500	2,323	651	926	-56.6	-60.1	1.0	1.1
9 이탈리아	575	879	604	981	387	636	-35.9	-35.2	0.6	0.8
10 스페인	24	27	70	100	165	228	135.8	128.0	0.3	0.3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미국과 중국산 배는 주로 가을에서 겨울까지, 아르헨티나산 배는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수입됨

- 미국산 배의 수입액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10월에서 1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월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미국산 배의 수입액은 12월에 623만 달러(한화 약 67억 767만 원)로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산 배는 일반적으로 8월부터 수입이 급증하며 1월까지 높은 수입 추세가 지속되다 2월부터 다시 감소함
  - 2017년 중국산 배는 11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어 134만 달러(한화 약 14억 5,022만 원)를 기록함

- 아르헨티나산 배의 경우 3월과 6월 사이 수입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시기에는 극소량 수입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산 배는 캐나다산 배가 수획되지 않는 봄과 여름에 주로 수입됨
    -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어 1월부터 6월에 주로 배를 수확하는 반면 캐나다는 8월에서 10월 사이 배를 수확함
- 2017년 기준, 한국산 배가 가장 많이 수입된 시기는 9월임
  - 9월에 수입이 시작되어 다음해 2월까지 이어지며,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수입되지 않음

〈표 1-7〉 캐나다 주요 수입국 최근 3개년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2017	5,558	3,986	2,916	1,925	1,061	831	2,049	3,603	4,446	5,921	6,006	6,231
	2016	7,605	4,264	2,846	2,522	1,403	683	2,789	3,629	4,658	6,012	6,246	5,619
	2015	7,705	4,663	3,238	1,949	1,293	641	2,604	3,832	4,968	6,385	8,147	6,378
아르헨티나	2017	7	460	3,577	2,928	2,810	2,170	531	59	3	4	3	1
	2016	14	430	3,191	3,952	2,795	2,299	612	124	9	5	2	6
	2015	8	631	4,067	4,506	3,364	1,893	365	65	13	10	3	11
중국	2017	1,215	850	971	1,092	720	182	243	1,189	1,335	1,203	1,342	1,320
	2016	1,039	1,025	818	1,479	751	370	253	1,197	1,291	1,481	1,232	1,454
	2015	1,741	773	1,634	1,585	1,233	417	1	619	666	1,834	1,695	1,346
한국	2017	166	37	-	-	-	-	-	-	275	158	266	214
	2016	114	-	-	-	-	-	-	146	93	290	173	189
	2015	113	36	-	-	-	-	-	-	239	195	176	244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ITC Trade Map

## II 소비현황

### 1. 캐나다 소비규모

- 캐나다의 신선 배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의 배 소비량은 증가해왔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임
    - 2013~2014년 8만 1,600톤의 소비량을 기록하였으며, 2016~2017년 7만 1,600톤까지 하락
  - 캐나다에서의 배는 99.7%가량이 신선 형태로 소비되며, 가공 소비는 전체의 0.3%로 극소량에 불과함
    - 2016~2017년 기준, 신선소비 형태는 7만 1,400톤을 기록하였으며 가공용 배 소비는 200톤으로 집계됨
      -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배는 주스, 와인 등 음료와 통조림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1-8〉 2009~2017년 캐나다 신선 배 소비 규모 추이

(단위: 천 톤)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신선상태 소비	79.6	75.5	78.1	81.3	81.4	80.7	75.2	71.4
가공 소비	3.4	0.4	0.2	0.2	0.2	0.3	0.4	0.2
합계	83	75.9	78.3	81.5	81.6	81	75.6	71.6

\* 주: 마케팅 연도 –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재배까지를 1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 출처: 미국 농무부

〈그림 1-2〉 배 가공식품 예시

		
스파클링 배 주스	키위-배 첨가 와인	유기농 배 통조림

\* 출처: 캐나다 음료 제조기업 Jus Tradition 홈페이지([www.vpj.ca](http://www.vpj.ca)), 캐나다 와인 제조기업([www.justfinewine.ca](http://www.justfinewine.ca)), 이미지 제공 사이트 Pinterest([www.pinterest.ca](http://www.pinterest.ca))

#### □ 캐나다의 1인당 연간 신선 배 소비량은 증감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보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의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2.1-2.2kg를 유지해왔으며, 큰 폭의 증감을 보이지 않음

〈표 1-9〉 캐나다 1인당 연간 배 소비량(2012~2016년)

(단위: kg)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량	2.2	2.1	2.2	2.1	2.1

\* 출처: 캐나다 농림부

## 2. 소비동향

#### □ 주요 소비 배 품종은 바틀릿 배, 보스크 배, 안주 배 등으로 서양 배가 주를 이루며 최근 새로 개발된 품종인 콜드스냅 배가 이목을 끌고 있음

- 바틀릿 배는 캐나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으로 신선 과일, 통조림 등의 형태로 소비됨
- 보스크 배, 안주 배는 주로 신선 과일의 형태로 소비됨
  - 보스크 배는 타 품종보다 과즙이 많아 베이킹 등 요리할 때 선호되는 품종임
  - 과거 주요 재배 품종이었던 안주배의 최근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 이는 과일의 크기와 모양을 고르게 유지하며 재배하는 것이 어려워 농가에서의 재배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종인 콜드스냅 배는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을에서 초겨울까지만 유통되는 다른 품종과 달리 콜드스냅 배는 초봄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음
  - 콜드스냅 배의 학명은 'AC Harovin Sundown'이나 해당 품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콜드스냅 배'로 명명함
  - 콜드스냅 배 품종을 개발한 캐나다 농업협동조합 바인랜드 그로워스는 캐나다의 광고대행사 Kitestring에게 해당 품종의 브랜딩을 의뢰함
  - Kitestring은 '콜드스냅' 로고를 제작하고 포장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 콜드스냅 배는 주로 Loblaw, Sobeys, Metro, Wal-Mart, Costco 등 대형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

〈그림 1-3〉 콜드스냅 배 제품 및 로고



\* 출처: 캐나다 광고대행사 Kitestring([www.kitestring.ca](http://www.kitestring.ca))

####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품종을 분류하지 않고 소비됨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동양 배는 일반적으로 품종이 명시되기보다 동양 배로 표기되어 판매됨
  - IGA와 Walmart 등 캐나다 식료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 내 서양 배는 보스크 배, 바틀릿 배 등 품종 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동양 배는 품종 구분이 되지 않음

〈그림 1-4〉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양배와 동양배

서양배	동양배
	
Small West Bosc Pear... 1 fruit (approx. 180 g) approx. \$0.79 / unit \$0.44 / 100 G	Bartlett Pears 1 fruit (approx. 200 g) approx. \$0.88 / unit \$0.44 / 100 G
Asian Pears 1 fruit (approx. 270 g) approx. \$1.54 / unit \$0.57 / 100 G	Asian Brown Pears 1 fruit (approx. 250 g) approx. \$1.43 / unit \$0.57 / 100 G

\* 출처: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www.iga.net](http://www.iga.net))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기침치료나 숙취해소 등에 효과가 있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음
  - 2018년 3월 캐나다 온라인 뉴스포털 The star는 동양 배가 기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2015년 10월 캐나다 온라인 뉴스포털 Huffpost 등에서는 동양 배가 숙취해소에 좋다는 기사를 배포함

〈그림 1-5〉 동양배 관련 기사

The star - 2018년 3월 기사	Huffpost - 2015년 10월 기사
<p>Life · Food &amp; Wine · Recipes</p> <p>THE STAR</p> <p><b>This summer, sink your teeth into the crispy, juicy Asian pear</b></p> <p>By CYNTHIA DAVID Special to the Star Wed., March 14, 2018</p> <p>If you enjoy crunchy, juicy fruit, pick up an Asian pear on your next visit to the produce section. Plump and round as an apple with golden brown or pale yellow-green skin, crisp, a grainy texture and lightly sweet taste, these ancient pears are ready to eat when you buy them and make a refreshing snack straight from the fridge.</p> 	<p>EDITION CA</p> <p>HUFFPOST</p> <p>NEWS POLITICS BUSINESS LIVING PARENTS VIDEO BLOGS MORE</p> <p>LIVING 04/04/2015 10:23 EDT   Updated 05/04/2015 10:42 EDT</p> <p><b>Asian Pears Touted For Helping Hangovers, Say Researchers</b></p> <p>Anticipate a booze-fueled, night of free-flowing drinking? You might want to hit the grocery store and pack in a few pears to head off a hangover.</p> <p>Because preliminary findings out of Australia's national science agency show that eating a pear — but not just any pear — could keep hangovers at bay the next day.</p> <p>Want to test the theory? According to scientists at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the best variety is the Korean or Asian pear, which differs from our familiar apples by resembling apples in shape.</p>  

\* 출처: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www.iga.net](http://www.iga.net))

### III

### 관련정책 및 인증

## 1. 검역 요건

### 가. 배 관련 수출요건

#### □ 캐나다로 배 수출 시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이 필수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서 관리하며 한국, 중국 등은 각 국의 식물검역 관련 기관에서 수출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된 배만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 재배지를 ‘캐나다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배를 재배해야 함
  - 한국산 배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 수출단지 지정은 재배 작업 및 재배지 검사를 거쳐 승인됨

- 재배지 검사는 크게 △봉지 씌우기 작업 후 검사 △수확 전(연 2회) 검사 △응애<sup>1)</sup> 예찰조사로 나뉨
  - 검사의 관할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며 최종 검사일은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짐
    - 황금배(Golden pears)는 9월 중순, 신고배(Shingo pears)는 10월 하순까지 검사가 실시됨
  - 봉지 씌우기 작업을 거친 배만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 작업 후 재배지 검사를 진행함
  - 또한 수확 전 1년에 두 번씩 병 또는 해충이 없는지를 검사항
  - 응애예찰조사는 6월에서 수확 1주 전까지 월 1회씩 진행해야함

1) 응애는 진드기아강에 속하는 진드기를 제외한 모든 절지동물의 총칭으로 과일의 잎에 붙어 영양분을 뺏는 곤충

- 재배지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음

1	1.5㏊ 당 최소 10그루의 나무에서 무작위로 잎을 수집
2	24시간 이내에 병, 해충 검사 실시 <sup>2)</sup>
3	검사 후 병 또는 해충이 발견된 과수원은 캐나다 수출단지 리스트에서 제외됨

- 하기에 기재된 병 또는 해충이 발견된 배는 수출이 불가함

-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 과수균핵병(*Monilinia fructigena*), 벚나무옹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 또는 Hawthorn spider mite),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배명나방(*Numonia pirivorella*), 뭉툭옹애(*Tetranychus truncatus*) 등

\* 캐나다 식품검사국(Food Inspection Agency) 한국산 동양배 검역 정보 사이트:  
[http://inspection.gc.ca/plants/plant-pests-invasive-species/directives/horticulture/d-95-08/eng/1322413085880/1322413275292#a2\\_7](http://inspection.gc.ca/plants/plant-pests-invasive-species/directives/horticulture/d-95-08/eng/1322413085880/1322413275292#a2_7)

-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州로 수출할 경우에만 규제함

- 한국산 배를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 수확 과실에 대해 한국검역관의 선과장 과실검사가 요구되며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이 표기된 한국 식물검역증(PC,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첨부해야함

- 한국 식물검역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적 전 14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

## 나. 한국산 배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 □ 2018년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출 검역요건이 완화됨

-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르면 ‘배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을 경우 해당 과수원의 제품은 캐나다로 수출이 불가’했음
  - 이에 따라 과수원 주변에 복숭아속 식물(벚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이 있을 경우 배 농가들은 캐나다로 수출을 포기함

2) 모든 잎은 해부 및 복합 현미경으로 검사해야하며 식물분류학자(taxonomist)가 확인해야 함

- 2018년 1월 캐나다와 배 검역요건이 완화되어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격리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수출단지 지정 요건이 완화됨
  - 기존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따르면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sup>3)</sup>에 준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만이 수출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2018년 검역요건 타결에 따라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받지 않아도 수출단지가 직경 40km 이내에 집단화 되고 재배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수출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 1-10〉 2018 한국산 배 캐나다 수출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용어 변경	수출재배단지	수출단지	타 고시와 용어 통일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수출재배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배 생산지역의 시장·군수는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 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캐나다 수출·배 재배단지 지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수출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캐나다·배 수출단지 지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단지 지정 전제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신청절차 간소화 (시·도지사 경유 → 시장·군수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li> <li>- 신청 장소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로 변경</li> </ul>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원내 또는 그 주위 200m 이내에 복숭아속식물을 비롯한 캐나다족 규제대상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li> </ul>	해당 문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식물검역당국과 합의한 수출단지 지정 요건 중 ‘그 주위 200m 이내에’ 문구 삭제로 규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재배단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단지는 직경 40km 이내에 집단화 되고, 재배면적은 10㏊ 이상 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이하 농산물 단지)’에 따라 ‘농산물단지’로 지정 받지 않아도 수출단지 지정 가능하도록 수출단지 요건 완화</li> </ul>

\* 출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참고(<http://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 2. 수입규제

### □ 캐나다 배 주요 농약 기준치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은 캐나다보건당국(Health Canada)의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해야 함
  - 배 관련 주요 농약 기준치는 하기와 같으며, 다음 주소에서 배 농약별 잔류 허용 기준치를 검색할 수 있음

\*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 농약별 기준치 검색 사이트: <http://pr-rp.hc-sc.gc.ca/mrl-lrm/index-eng.php>

〈표 1-11〉 캐나다 배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품목명	기준치 (ppm)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DV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DV
도딘(Dodine)	5	에톡시퀸(Ethoxyquin)	3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2	옥사밀(Oxamyl)	DV
말라치온(Malathion)	2	오 폴리페놀(o-phenylphenol)	25
Methoxyfenozide	1.5	카바릴(Carbaryl)	5
Buprofezin	6	캡탄(Captan)	5
비펜스린(Bifenthrin)	0.9	크로펜테진(Clofentezine)	0.5

\* 주: DV(Default Value)는 기본값으로 0.1ppm 의미

\* 출처: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

### □ 관세율

- 캐나다 배의 HS코드는 0808.30(배)이며, 한국산 배를 캐나다로 수출시 최혜국 (Most Favoured Nation, MFN)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됨

## 1. 북미지역 신선 배 시장 비교

### 가. 캐나다와 미국 시장 비교 배경

□ 캐나다의 인접국가인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배 수출국으로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임

- 2017년 기준, 對미국 배 수출액은 3,040만 2,000달러(한화 약 329억 1,061만 원)를 달성했으며, 전체의 46%를 차지함
  -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전년대비 각각 2.7%, 3.1%씩 증가함

〈표 1-12〉 한국 배 주요 수출국가(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22,493	57,713	25,607	65,356	27,157	66,159	6.1	1.2	100.0	100.0
1 미국	9,333	26,012	10,359	29,482	10,641	30,402	2.7	3.1	39.2	46.0
2 대만	10,161	24,872	9,914	23,333	9,067	20,166	-8.5	-13.6	33.4	30.5
3 베트남	1,145	2,312	2,383	4,961	4,968	9,609	108.5	93.7	18.3	14.5
4 홍콩	482	1,015	475	992	635	1,249	33.7	25.9	2.3	1.9
5 캐나다	324	921	359	1,067	345	1,002	-3.9	-6.1	1.3	1.5

\* 주: 한국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른

\* 출처: Global Trade Atlas

- 미국에서는 일본산과 중국산 품종을 중심으로 동양 배가 재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산 배의 경우 'K-pears' 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다양한 레시피가 추천될 정도로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산 배의 對캐나다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한국 배 진출 사례를 조사함

## 나. 수입현황 비교

- 한국은 미국의 배 수입 2위 국가로, 캐나다에 비해 수입 비중이 높음
  - 미국의 주요 배 수입국가 중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미국의 전체 배 수입액 중 한국산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전체 배 수입액 중에서는 0.8%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함
    - 2017년 한국산 배의 수입액은 3,059만 달러(한화 약 331억 4,193만 원)를 기록, 주요 10개 수입국가 중 한국산 수입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배의 수입단가는 캐나다보다 미국이 소폭 높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배 수입단가는 2.90달러/kg(한화 약 3,208원/kg)로 2.22달러/kg(한화 약 2,456원/kg)인 캐나다에 비해 0.68달러(한화 약 752원/kg) 높은 수준
      - 동년 미국의 배 총 수입단가는 1.55달러/kg(한화 약 1,676원/kg)로 캐나다의 배 총 수입단가는 1.30달러/kg(한화 약 1,405원/kg)로 집계됨
  - 그 외 미국의 주요 배 수입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이 있음
    - 2017년 아르헨티나산 배는 4,582만 달러(한화 약 495억 3,513만 원)가 수입되어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중국과 칠레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함

〈표 1-13〉 미국의 국가별 배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89,285	130,975	81,957	116,344	73,075	113,469	-10.8	-2.5	100	100
1 아르헨티나	47,092	60,266	42,266	48,671	35,360	45,818	-16.3	-5.9	48.4	40.4
2 한국	9,626	27,366	10,169	29,665	10,553	30,593	3.8	3.1	14.4	27.0
3 칠레	19,748	23,450	14,962	17,980	13,712	17,993	-8.4	0.1	18.8	15.9
4 중국	10,583	15,596	12,466	16,733	11,605	15,563	-6.9	-7.0	15.9	13.7
5 뉴질랜드	1,081	2,328	1,115	1,821	1,114	2,158	-0.1	18.5	1.5	1.9
6 남아프리카공화국	968	1,550	577	779	465	678	-19.4	-13.0	0.6	0.6
7 프랑스	74	231	90	169	141	476	56.7	181.7	0.2	0.4
8 일본	41	158	42	170	29	121	-31.0	-28.8	0.04	0.1
9 캐나다	68	26	247	332	51	38	-79.4	-88.6	0.1	0.03
10 베트남	0	0	0	0	0	0	-	-	-	-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미국에서 한국산 배는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수입되고 있음

- 한국산 배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미국으로 수입되나,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수입되는 것이 특징
  - 8월에 수입이 시작되어 9월에서 1월까지의 수입규모가 가장 높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수입액이 가장 높은 11월의 수입액은 2017년 858만 달러(한화 약 92억 9,577만 원)로 2017년 총 수입액의 28.1%로 집계됨

〈표 1-14〉 미국의 아르헨티나 및 한국산 배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르헨티나	2017	-	9,643	13,681	15,096	9,691	4,254	232	97	68	-	-	-
	2016	-	7,267	19,203	16,302	9,942	3,037	394	64	-	-	-	-
	2015	-	6,244	18,910	26,514	13,111	4,246	598	28	-	-	-	-
한국	2017	3,429	1,492	1,310	498	412	353	-	1,897	3,466	4,736	8,577	5,991
	2016	2,890	1,453	1,065	161	158	39	-	2,173	2,659	7,252	7,783	5,530
	2015	3,497	1,947	987	612	313	126	-	26	3,659	4,621	7,391	5,781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ITC Trade Map

## 다. 소비현황 비교

- 미국의 전체 배 소비량은 캐나다에 비해 높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배 소비량은 2011~2012년 72만 8,0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세를 보이며 2016~2017년에는 61만 5,000톤으로 집계됨
    - 2016~2017년 배 소비량 중 약 34%에 달하는 20만 9,000톤의 배가 가공용으로 소비됨
  - 2016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연간 신선 배 소비량은 약 1.3kg으로 집계되어 캐나다 (2.1kg)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15〉 2009~2017년 미국 신선 배 소비 규모 추이

(단위: 천 톤)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신선상태 소비	446	410	456	395	409	414	390	406
가공 소비	319	256	292	272	265	255	262	209
합계	765	666	748	667	674	669	652	615

\* 주: 마케팅 연도 –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재배까지를 1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 출처: 미국 농무부

〈표 1-16〉 미국 1인당 연간 배 소비량(2012~2016년)

(단위: kg)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량	1.3	1.3	1.3	1.2	1.3

\* 출처: Statista

-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배 소비품종은 동일하지만 미국에서 동양 배에 대한 관심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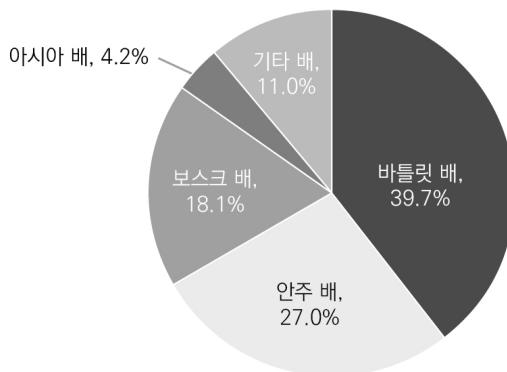
### 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소비되는 배 품종으로는 바틀릿 배, 안주 배, 보스크 배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소비가 가장 높은 배 품종은 바틀릿 배인 것으로 조사됨

- 전문 시장조사기업 스테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바틀릿 배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배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안주 배 27%, 보스크 배 18%, 동양 배 4% 순임
- 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선 상태로도 소비되지만, 조리용으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틀릿 배는 주로 스낵용 및 통조림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주 배는 샐러드, 베이킹, 파이 등으로 보스크 배는 굽거나 졸인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

〈표 1-17〉 2017년 미국 품종별 배 소비 비중

(단위: %)



\* 출처: Statista

- 미국에서는 동양 배 재배가 직접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양 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州, 오리건(Oregon)州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일본산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량의 중국 품종이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한국산 배는 서양 배와는 달리 조리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베이킹 용으로 추천되지 않으며 주로 신선한 상태에서 샐러드 혹은 스낵 등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요리 레시피, 방법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스프루스 잇(Spruce eat)에서 는 한국산 배를 ‘Bae’로 소개하며 맛, 용도, 보관 방법 등을 소개함
  - 여기서도 한국산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신선 상태에서 디저트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 라. 동양 배 마케팅현황 비교

- 캐나다에서는 동양 배의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는 ‘K-pear’라는 브랜드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활약 중
  - ‘K-pear’는 2012년 한국배연합회가 한국산 배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한국배 브랜드
    - 당시 미국 내에서 저렴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실정이었음
    -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으로 배를 수출할 경우 박스뿐만 아니라 낱개 제품에도 ‘K-pear’ 마크를 부착하기 시작함
  - 또한 한국배연합회는 미국 등 글로벌 소비자의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위생과 품질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
    - 한국의 배 수출 농가들은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lobal GAP)<sup>4)</sup>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1-6〉 K-pear 마크 및 미국 판매 사진



\* 출처: 검색엔진([www.yahoo.com](http://www.yahoo.com)), 미국 과일 전문 도매업체([www.specialtyproduce.com](http://www.specialtyproduce.com))

4)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국제적 제도

## 마. 수입규제 비교

- 미국 배 수입 검역 요건 및 잔류 농약 허용기준은 캐나다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향후 농약사용 기준치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
  - 미국 배 시장의 경우, 캐나다에 비해 수입 규제와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한국산 배 수출에 큰 문제를 겪어오지 않음
    - 미국으로 과실 및 채소류를 수입할 경우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하며 지정된 반입항을 통해 수입되어야 함
    - 또한 사업용과 비상업용 모두 미국 동식물건강검사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단 건조 또는 가공품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 한국산 배의 경우 한국 식물검역증과 현지 검역만 받으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 미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캐나다에 비해 기준치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하기 사이트에서 주요 농약별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 미국 노스웨스트 원예위원회 배 잔류 농약 허용치 고시([http://nwhort.org/export-manual/comparison\\_mrls/pear-mrls/](http://nwhort.org/export-manual/comparison_mrls/pear-mrls/))

〈표 1-18〉 미국 배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품목명	기준치 (ppm)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05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0.5
도딘(Dodine)	5	에톡시퀸(Ethoxyquin)	3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2	옥사밀(Oxamyl)	2
말라치온(Malathion)	8	오 폴리페놀(o-phenylphenol)	25
Methoxyfenozide	2	카바릴(Carbaryl)	12
Buprofezin	6	캡탄(Captan)	25
비펜스린(Bifenthrin)	0.5	크로펜테진(Clofentezine)	0.5

\* 출처: 미국 노스웨스트 원예위원회(<http://nwhort.org>)

-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이 EPA(미국 환경보호국)를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의 등록을 취소하고 잔류허용량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짐<sup>5)</sup>

5) 농민신문, 美 “글리포세이트=빌암 물질” 판결(<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296744/view>), 2018-08-27

- EPA는 지난 2000년 사과와 포도, 토마토 농작물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배 재배 시의 농약 기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EPA는 60일 내로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허용량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따라서 EPA의 향후 조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 관세율

- 미국 배의 HS코드는 0808.30(배)이며,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 시 기본세율은 0%로 면제됨

※ 캐나다와 미국 배 시장비교 요약표

기준	캐나다	미국
수입현황 (주요 수입국 및 수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부터 배 수입규모 하락</li> <li>- 주요 수입 3개 국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한국 7위)</li> <li>- 주요 수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10월~1일</li> <li>· 아르헨티나: 3월~6월</li> <li>· 중국: 6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높은 수입량을 유지</li> <li>· 한국: 9월 ~ 1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부터 배 수입규모 하락</li> <li>- 주요 수입 3개 국가: 아르헨티나, 한국, 칠레</li> <li>- 주요 수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 2월~5월</li> <li>· 한국: 7월을 제외한 연중 수입</li> </ul> </li> </ul>
소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li> <li>· 2016~2017: 7만 1,600톤(전년 대비 5% 하락)</li> <li>·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2.1~2.2kg 유지</li> </ul> </li> <li>- 주요 소비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틀릿 배, 보스크 배, 안주 배</li> <li>· 신규품종 콜드스냅 배의 등장</li> </ul> </li> <li>- 동양 배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가 낮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 별 구분 및 소비는 없음</li> <li>· 'Asian pear'로 통칭해서 판매</li> <li>· 최근 기침 치료, 속취 해소 등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감추세 반복</li> <li>· 2016~2017: 61만 5,000톤(전년 대비 5% 하락)</li> <li>· 가공용 배 소비가 전체의 30% 이상 차지</li> <li>·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1.2~1.3kg 사이</li> </ul> </li> <li>- 주요 소비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틀릿 배(40%), 안주 배(27%), 보스크 배(18%), 동양 배(4%)</li> </ul> </li> <li>- 동양 배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자체 생산 중이며 질병예방 및 건강에 좋다는 평판</li> </ul> </li> </ul>
동양 배 마케팅 현황 (한국산 포함)	특이점이 조사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each'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확대</li> <li>· 'K-peach' 마크 부착으로 둔갑판매 방지</li> <li>· Global G.A.P 인증 취득으로 위생 및 안전성 보장</li> </ul>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수출단지'로 지정 필수</li> <li>- 재배 작업 및 재배지 검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 봉지, 배나무, 해충 등 검사</li> </ul> </li> <li>-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경유'에서 '시장·군수 경유'로 변경</li> <li>· 규제대상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격리규정 삭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수입요건</li> <li>·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함</li> <li>· 도착지 검사, 소독처리, 상업용 화물로 수입 등의 관리방안 준수 필요</li> <li>· 한국산 배의 경우 식물검역증 필요</li> </ul>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혜국(MFN, Most Favoured Nation)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세율 0%로 면제</li> </ul>

## 2. 한국산 신선 배 캐나다 진출방안 제언

### □ '한국산 배' 품종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개별 품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되고 있음
  - 한국산 신선 배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처럼 '동양 배'가 아닌 '한국산 배'의 이미지 브랜딩이 필요함
- 한국산 배는 수분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낮다는 점을 내세워 신선소비는 물론 웰빙과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현지에서 동양 배는 숙취해소와 기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건강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 한국산 신선 배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 배의 위생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수반하여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 운송 시의 품질 손상 우려 등 제한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촉구됨

- 신선 배는 비교적 과실의 경도가 높아 해상 냉장운송이 가능하나 현지에서 재배되거나 인근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편임
  - 동양 배는 껍질이 얇아 재배 및 보관이 어려우며, 유통 과정에서 과실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송 시의 흔들림과 충격에도 과육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포장재 선정 및 포장 방법이 필요함

-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섭취방법 홍보 및 레시피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북미산 배에 비해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산 배는 'Asian Pear'라는 새로운 과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현지인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추세
    - 최근 다양한 현지 매체에서는 배를 활용한 색다른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식문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1-19〉 캐나다 현지 매체에 게재된 배 활용 레시피



\* 출처: [www.foodnetwork.com](http://www.foodnetwork.com), [www.foodbloggersofcanada.com](http://www.foodbloggersofcanada.com)



## 2 캐나다, 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여건 조사

- I. 파프리카 개념 정의 및 기준
- II. 캐나다 파프리카 시장
- III. 멕시코 파프리카 시장
- IV. 對일본 파프리카 수출경쟁력 분석



## Chapter

# 2 캐나다, 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여건 조사

I. 파프리카 개념 정의 및 기준 .....	34
II. 캐나다 파프리카 시장 .....	36
1. 생산현황 .....	36
가. 생산규모 .....	36
나. 품종 .....	38
다. 기관 및 인증정보 .....	39
2. 수출현황 .....	41
3.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43
가. 정부 지원 .....	43
나. 주정부 지원 .....	45
III. 멕시코 파프리카 시장 .....	49
1. 생산현황 .....	49
가. 생산규모 .....	49
나. 품종 .....	52
다. 기관 및 인증정보 .....	52
2. 수출현황 .....	53
3.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55
IV. 對일본 파프리카 수출경쟁력 분석 .....	57
1. 일본 파프리카 시장개요 .....	57
가. 생산현황 .....	57
나. 수입현황 .....	58
다. 소비현황 .....	63
2. 수출경쟁력 비교 .....	64

## I

## 파프리카 개념 정의 및 기준

### □ 식물학적으로 동일한 작물인 피망과 파프리카

- 파프리카는 맛이나 향, 식감 등에 차이가 나도록 피망을 인위적으로 개량한 종임
- 한국에서도 피망과 파프리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원예학회는 두 가지 모두를 ‘단고추류(Sweet Pepper)’로 분류함
  - 한국 소비자들은 구매에 있어 향이나 색, 매운 정도에 따라 피망과 파프리카를 다르게 인식함

### □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매운맛이 약한 벨 형태(Bell Type)의 고추류를 의미함

- 해외에서는 파프리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피망의 한 품종으로 인식함
  - 캐나다에서는 ‘Sweet Pepper’, ‘Bell Pepper’ 등으로 맵지 않은 피망을 칭함
  - 멕시코에서는 벨모양의 맵지 않은 고추를 ‘Chile bell’로 구분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Chillies and peppers, green’으로 피망을 포함한 고추류로 분류하고 있음
- 일본은 ‘매운맛의 정도’에 따라 고추류를 고추와 피망으로 구분하며, 피망 중 과실의 모양이 벨 형태인 것을 ‘파프리카(Bell Pepper)’로 부름

〈표 2-1〉 일본 파프리카 개념 정의



\*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http://www.maff.go.jp))

보고서 작성 기준

〈표 2-2〉 국가별 통계 기준

	생산 통계 기준	수출입 통계 기준
캐나다	캐나다통계청, 피망(pepper)	HScode 0709.60(피망-고추류, 캡시쿰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온실재배/온실재배 외)
멕시코	국제연합 농업용통계데이터(FAO Stat), 피망-고추류(Chillies and peppers, green)	멕시코 HScode 0709.60-01(파프리카)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 파프리카(パプリカ) 기준	일본 HScode 0709.60-010(파프리카, 큰 벌타입)

## II 캐나다 파프리카 시장

### 1. 생산현황

#### 가. 생산규모

##### 캐나다 피망 생산량 지속적 증가세

- 2017년 캐나다의 피망(파프리카 포함) 생산량은 7만 8,531톤에 달함
  - 캐나다에서 피망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전 세계 고추류 생산량은 3,449만 7,000톤으로 캐나다 피망은 약 0.23%를 차지함

〈표 2-3〉 캐나다 피망(Pepper) 생산량 및 생산면적

(단위: ha, 천 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배면적	1,888	1,815	1,942	2,356	2,458	2,558	2,660	2,701	2,771	2,556
수확면적	1,756	1,746	1,868	2,289	2,433	2,453	2,623	2,700	2,740	2,536
생산량	46	47	51	56	62	63	73	72	76	79
세계생산량 <sup>6)</sup>	28,115	28,758	29,674	30,243	30,903	31,257	32,125	33,280	34,497	-

\* 출처: 캐나다 통계청(statcan.gc.ca)

- 주요 생산지인 온타리오(Ontario)주와 케벡(Quebec)주의 생산량이 2017년 캐나다 전체 생산의 96% 이상을 차지함
  - 온타리오주는 피망의 최대생산지로 2017년 5만 2,948톤을 생산하며 전체의 67%를 차지함

6) FAO ‘고추류(Chillies and peppers, green)’기준, 최신자료

〈표 2-4〉 주요 州별 피망(Pepper) 생산량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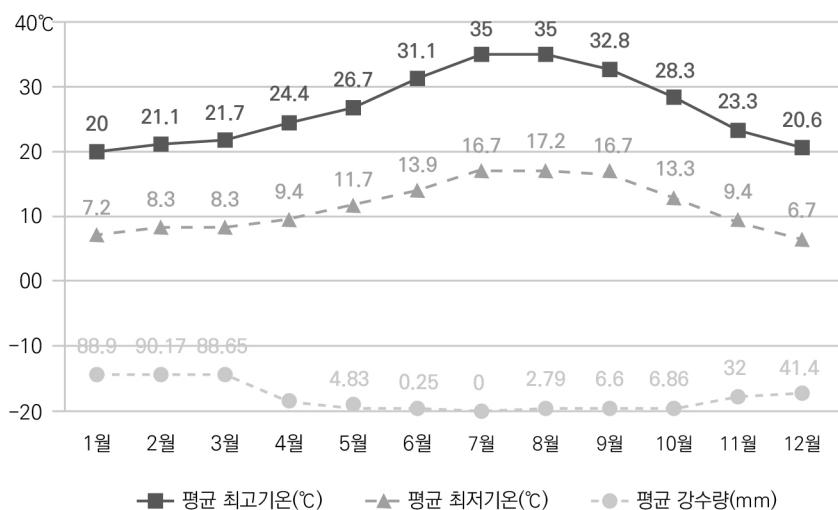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중	96.8	99.5	99.7	99.4	99.5	99.5	99.4	99.3	99.3	99.3
온타리오	생산량	28,130	28,664	29,854	36,811	39,293	40,875	48,390	43,606	46,750	52,948
	비중	60.8	61.0	58.0	65.9	63.0	64.6	66.4	60.6	61.7	67.4
魁벡	생산량	16,660	15,858	19,020	16,015	19,777	19,500	20,799	24,918	25,038	22,714
	비중	36.0	33.8	37.0	28.7	31.7	30.8	28.5	34.6	33.1	28.9
브리티시 콜롬비아	생산량	-	2,213	2,446	2,702	3,000	2,581	3,295	2,978	3,433	2,338
콜롬비아	비중	-	4.7	4.8	4.8	4.8	4.1	4.5	4.1	4.5	3.0

\* 출처: 캐나다 통계청(statcan.gc.ca)

## ○ 캐나다에서는 파프리카 재배 시 온실재배를 주로 함

- 대표 생산지인 온타리오주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대가 자연조건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기에 알맞지 않은 기후환경임
- 파프리카는 온화한 기온(18~30°C)과 강수량과 일조량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며 토양 속에 존재하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토지재배보다는 수경재배가 생육에 유리함

〈표 2-5〉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후



\* 출처: The Weather Channel(weather.com), 2017년 기준

- 캐나다의 온실 파프리카 재배는 1년 단위의 생산주기를 기반으로 함
  - 매년 10월 중순 씨를 뿌리고 첫 수확까지 대개 20주(4개월)가 소요됨
  -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인 3월 말부터 첫 수확을 시작하여 최저기온이 10°C 이하로 하락하기 이전인 11월초까지 연중 재배하나, 새로운 생산주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의 수확이 주를 이룸

□ 2015년 기준 캐나다의 유기농 작물재배 중 채소류의 비중은 1.8%에 불과<sup>7)</sup>

- 유기농 파프리카 생산비중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음
  - 그러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는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들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sup>8)</sup>

## 나. 품종

□ 캐나다 피망류 중 13개 품종이 파프리카 유사품으로 파악됨

- 캐나다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등록된 피망류(Pepper)는 총 17개임

〈표 2-6〉 캐나다 피망 품종 구분

구분	품종				
단고추 명시	·Bentley ·Orbit	·Eurix ·Polirix	·Healey ·SBR281220	·Keessie ·SBR281244	·Maduro
캡사이신 미생성	·Fabris	·Hattrick	·Redwing	·Rookie	
기타	·E20S0153	·Palermo	·Obedius	·SBY281125	·SBY281273

\* 출처: 캐나다식품검사국([www.inspection.gc.ca](http://www.inspection.gc.ca))

7) 캐나다유기농무역협회(Canada Organic Trade Association, COTA)

8) 목차 II-1-다. 캐나다 신선품목 유기농인증(본문 p8) 참고

- 이 중 9개 품목은 ‘단고추(Sweet Pepper)’로 명시되어 있음
- 아래의 4개 품목은 단고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상세 및 생김새로 보아 파프리카로 판단됨
  - ‘Fabris’, ‘Hattrick’, ‘Redwing’, ‘Rookie’ 등의 품종은 태좌(Plecneta)에서 캡사이신이 생성되지 않으며 과실의 모양 또한 피망과 유사함

〈표 2-7〉 캡사이신 미생성 품종

Fabris	Hattrick	Redwing	Rook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 대형/특대형</li> <li>· 색깔: 빨강</li> <li>· 숙기: 중생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 소형/중형</li> <li>· 색깔: 노랑색(약간 어두움)</li> <li>· 숙기: 중생/만생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 특대형</li> <li>· 색깔: 빨강색</li> <li>· 숙기: 중생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 중형/대형</li> <li>· 색깔: 노랑색</li> <li>· 숙기: 중생종</li> </ul>

\* 출처: Rijk ZWAAN(<https://www.rijkzwaanusa.com>), 캐나다식품검사국(<http://www.inspection.gc.ca>)

## 다. 기관 및 인증정보

### □ 캐나다 신선농산물 관련 기관

- 온타리오주 과일 및 채소 생산자 협회(Ontario Fruit and Vegetable Growers' Association, OFVGA)
  - 1859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농산물협회 중 하나로 온타리오주의 과일, 채소 및 식용 가능한 원예농작물 재배자로 구성되어 있음
  - 작물보호 및 재배, 인력관리, 자금조달 등 원예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Fresh from the Farm’ 프로그램을 통해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신선 농작물을 판매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농민을 지원
  - 캐나다의 보건 및 장기요양부(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의 자금지원 하에 북온타리오주 정부지원 대상 학교로 신선 농산물 조달 및 유통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부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처 확보 및 생산자 수익 유지 등의 효과

- 캐나다 원예위원회(Canadian Horticultural Council, CHC)
  - 캐나다 원예위원회는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의 ‘Growing Forward 2’ 프로그램에 따라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원예작물 역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살진균제 배합 평가, 품종개발 등의 연구가 시행됨
  - 온실재배 고추류를 포함한 과일 및 채소 등의 작물생산 및 해충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캐나다 신선농산물 유기농인증

-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규제 하에 유기농제품규정(Organic Product Regulations)에 부합하는 식품에 부여되는 인증
  - 캐나다에서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최초로 법적 규제화된 인증임
  -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유기농’ 혹은 이와 유사한 단어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음
  - 주(州) 또는 국경 간 유기농 제품의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유기농 인증취득이 요구됨
  - 캐나다-미국 간 상호동등성협약(US-COEA)에 따라 캐나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국 ‘USDA 유기농 인증’<sup>9)</sup>을 받은 제품 또한 캐나다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됨

〈그림 2-1〉 캐나다 유기농 인증

캐나다 유기농 인증	USDA 인증

\* 출처: 캐나다 식품검사국([www.inspection.gc.ca](http://www.inspection.gc.ca)), 미국 농무부([www.usda.gov](http://www.usda.gov))

9)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규정한 NOP 규정(NOP regulations)에 부합하는 식품 및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캐나다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Nature Fresh Farms’
  -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북미 최대 피망 생산업체로 캐나다 유기농 인증뿐만 아니라 USDA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Nature Fresh Farms’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유기농 피망 재배 면적을 두 배로 늘림
-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에 위치한 ‘Origin Organic Farms’는 캐나다 유기농 인증, USDA 인증을 보유함
  - ‘Origin Organic Farms’는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유기농 피망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힘

## 2. 수출현황

### □ 캐나다의 피망 수출은 증가 추세

- 2017년 기준, 캐나다의 피망 수출액은 3억 5,334만 달러(한화 약 3,783억 원)로 2013년부터 연평균 3%의 성장세를 보임
  - 전년 대비 수출액은 2%가량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약 6% 가량 하락함

〈표 2-8〉 캐나다 피망 최근 5개년 수출규모

(단위: 천 달러, 톤)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	306,147	319,574	331,909	347,024	353,336
수출량	115,638	124,332	126,106	152,699	142,776
단가	2.65	2.57	2.63	2.27	2.47

\* 주 HScode 0709.60(피망-고추류,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온실재배/온실재배 외)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 캐나다 월별 수출규모

- 캐나다산 피망 수출은 6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짐
  - 수출규모는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다가 9월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3년 월별 평균, 8월이 4,760만 달러(한화 약 514억 원)로 가장 높음

〈표 2-9〉 캐나다 피망 최근 3개년 월별 수출규모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2,964	2,381	4,018	7,706	11,764	14,475	14,389	13,532	11,678	9,744	5,662	3,210
2016	3,036	2,932	4,557	9,983	12,545	14,853	13,739	14,245	11,534	8,205	4,551	2,343
2015	2,458	1,986	3,329	9,231	10,462	13,172	12,464	12,829	12,263	8,613	5,976	2,520
3년평균	2,819	2,433	3,968	8,973	11,590	14,167	13,530	13,535	11,825	8,854,	5,396	2,691

\* 주 HScode 0709.60(피망-고추류,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온실재배/온실재배 외)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며, 일본이 신흥시장으로 부상

- 미국은 2017년 캐나다 피망 수출의 99% 이상이 되는 주요 수출국가임
  - 캐나다와 미국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가 간 농수산물 식품 거래를 늘려옴
    - 현재 RCC(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를 운영하며 양국의 규제 조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미국으로의 수출은 매년 소폭 증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
- 2017년 캐나다산 피망의 對일본 수출액은 41만 5,000달러(한화 약 4억 4,800만 원)로 전년대비 3,000% 이상 성장

〈표 2-10〉 캐나다 피망 주요 수출국가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합계	331,909	126,106	347,024	152,699	353,336	142,776	1.8	-6.5	100	100
1. 미국	331,636	125,996	346,718	152,568	352,546	142,486	1.7	-6.6	99.8	99.8
2. 일본	0	0	11	4	415	146	3,672.7	3,550	0.1	0.1
3. 홍콩	134	52	241	93	247	95	2.5	2.2	0.1	0.1
4. 인도	0	0	0	0	55	21	-	-	0	0
5. 대만	0	0	8	3	36	14	350	366.7	0	0
6. 프랑스	30	10	29	12	26	10	-10.3	-	0	0
7. 중국	0	0	0	0	9	4	-	-	0	0
8. 생피에르 미클롱	2	1	2	1	2	1	0	0	0	0
9. 그린란드	2	1	0	0	0	0	-	-	0	0

\* 주: HScode 0709.60(피망-고추류,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온실재배/온실재배 외)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3.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가. 정부 지원

- 캐나다 농림부는 농가의 성장 및 소득보호를 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농업보험 프로그램
    - 자연재해 등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목표로 함
    - 연방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각 주정부의 농업부서가 시행함
    - 옥수수, 귀리, 보리 등의 전통작물 재배 외에 꿀벌(양봉), 단풍나무시럽 생산 등에 대한 손실까지도 보상함
  - 농업 대출법(Canadian Agricultural Loans Act, CALA) 프로그램
    - 농가 및 농업협동조합의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농업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최대 95%까지 상환을 보증함
    - 1개 농장에 가능한 최대 대출한도는 총 50만 달러(한화 약 5억 4천만 원)임
    - 다만 농가와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자금을 운용 가능한 사업 범위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음
      - 농가: 농장 건설 및 개발, 시설 개선 등
      - 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유통, 시장개발 등
  - 가격통합(Price Pooling) 프로그램
    - 농산품의 시장가격 급락 시 농산물 마케팅협동조합(Marketing Agency)<sup>10)</sup>에게 제품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
    - 농가와 협동조합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 협동조합은 농산물 수취 시 농가에 초기대금을 지급하고 적절한 보관, 처리, 운반, 판매 등을 행하였을 시 판매비용을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음

10) 농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활동을 협동조합플랜(Cooperative Plan)에 맞추어 수행하는 생산자,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협회

- 협동조합이 초기에 농가에 지불한 비용보다 실제 판매가격이 낮은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임
- 대금수령의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부여하고 농가가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장려함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있음

- 인증취득 지원 프로그램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 중소기업들의 수출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이 수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고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3자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을 취득에 관련된 아래의 활동비용을 지원
  - 특정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 인증 취득 전문가 고용
  - 인증 취득에 필요한 업무상 출장
  - 비용을 지원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Target Market) 진출 시 해당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 해당 인증취득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되는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농업 마케팅 프로그램(Aggregation Marketing Program, AAC)
  -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기업이 AAC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하게 실현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해외 신시장 성장 및 기존시장 확대
    - 시장접근에 관한 문제점 심층조사 및 해결
    - 신제품 출시 또는 신시장 수출을 기회로 연결시키는 마케팅전략 수립

- 제품홍보 및 시장개발 등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활동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수출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단체를 명시하는 광고
  - 바이어 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식품광고 및 제품 시연
  - 바이어 초청 및 방문 사절단
  - 제품 상세 또는 취급에 관한 바이어 기술 교육
  - 국제 무역박람회(Trade Show)에서 전시
- 어류 및 해산물을 포함하여 농업·농산물·농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한하여 프로그램 지원 가능함
- 보조금은 회계연도 당 5만 달러(한화 약 5천 4백만 원)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주정부 지원

### 퀘벡(Québec)州

- 식품산업 수출업체 재정지원 프로그램(MAPAQ)
  - 농식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로 수행되는 활동 시 수출보조금(Export Fund)을 지원함
    -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활용
  - 본사는 퀘벡주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활동은 수출 시장(캐나다 내 퀘벡주 외, 타 국가)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
  -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활동의 목표 및 일정, 예상 이익(매출액기준), 세부활동계획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아래와 같이 30%의 보조금 상환 또는 일괄 지급의 형태로 나누어 재정 지원됨

〈표 2-11〉 식품산업 수출업체 재정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유형

지출의 30%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li> <li>· 번역</li> <li>· 판촉 디자인</li> <li>· 라벨링 및 패키징</li> </ul>	일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일즈포인트 발굴 및 판촉</li> <li>·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답사</li> <li>· 시장타당성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초청</li> <li>· 트레이드쇼(Trade Show) 참가</li> </ul>

-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한도는 없으며, 활동 보고서 제출 시 세부활동 계획 및 예상 이익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 활동 종료 후 60일 이내에 증빙자료가 첨부된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청 구기간 외 청구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 시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음
- 퀘벡-캐나다 농식품 수출 그룹(Québec-Canada Agri-Food Export Group) 운영
  - 캐나다 최대의 농식품 수출협회인 퀘벡-캐나다 농식품수출그룹을 운영하여, 해 외 시장 진출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함
  - 무역박람회, 사절단 운영 및 구매자 미팅 개최, 세미나 및 수출관련 회의를 포함 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 특히 해외의 관련 박람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정리한 연간 활동 캘린더 사이트를 운영하여 참가를 용이하게 함

〈그림 2-2〉 연간 활동 캘린더 사이트 예시

Home > Calendar of Activities

## Calendar of Activities

[Print List](#) - [Print the complete calendar](#)

<input type="radio"/> All	<input checked="" type="radio"/> Trade Shows	<input type="radio"/> ECRM event	<input type="radio"/> Trade Missions and Buyer Meetings	<input type="radio"/> Training	<input type="radio"/> Network activities	<input type="radio"/> Events
Date	All events					
<span style="color: #ffcc00;">■</span> April 24 - 27, 2018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b>Food &amp; Hotel Asia 2018</b>            April 24 - 27, 2018  <b>Singapore Expo &amp; Suntec Singapore</b>            Singapore, Singapore         </div> </div> <p>FHA Singapore is the largest food products exhibition for retail and HRI in Southeast Asia ...</p> <p>Coordinator / contact            Hicham El Ghissassi  <a href="mailto:HichamElGhissassi@GroupExport.ca">HichamElGhissassi@GroupExport.ca</a>            T 450-649-6266   1-800-563-9767 ext: 206</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Subscription is no longer available</a> <a href="#">More Infos</a></p>					

\* 출처: [groupexport.ca/en/calendrier/liste/tous](http://groupexport.ca/en/calendrier/liste/tous)

## □ 온타리오(Ontario)州

- 통합해충관리(Crop IPM) 서비스
  - 통합해충관리는 다양한 운영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충 방제를 도와주는 시스템임
  - 생물학 혹은 화학적 방법을 활용하거나 배양을 통해 살충제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
  - 통합해충관리 프로그램은 농작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재배자의 주의 깊은 관리와 활용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통합해충관리를 활용하여 피망의 이앙부터 재배까지 꽃 넓게 활용할 수 있음
    - 온타리오 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피망을 재배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파프리카임
    - 피망의 해충 중 가장 많은 종류는 옥수수들명나방과 세균병이며 이 외에도 많은 해충이 있음
- 온타리오 농촌 로드맵(Ontario Rural Roadmap)
  - 2014년 발표된 ‘농촌 로드맵: 온타리오주 미래 방향’은 농촌 일자리 지원과 투자유치 등을 이루어 지역 내 농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임
  -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일자리, 사업 및 지역임
    - 온타리오 주정부는 소규모 농촌 병원들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소규모 농촌병원전환기금(Small and Rural Hospital Transformation Fund)을 통해 8,000만 달러(한화 약 864억 6,400만 원)를 지원함
    - 10년 동안 1,3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 이상을 도로, 다리, 상하수도 시스템 등 인프라 발전에 투자해왔으며 지역 농업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농촌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 ‘Going Forward 2’는 캐나다 연방-주정부에서 계획한 농식품 및 농산물 부문에서의 혁신과 경쟁력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프로젝트임
    - 2013년 4월에 발표된 이후, 식품 가공업에 780만 달러(한화 83억 원)를 지원

- 농장 소득 안정화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타리오 주의 농업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국제무역 진출전략(Going Global Trade Strategy)
  - 온타리오주에서 실시하는 농촌 로드맵의 일부로, 주정부가 주 내 농식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
  - 아래와 같이 총 네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2-12〉 국제무역 진출전략 목표 및 활동 예시

목표	정의 및 주요 활동 예시
시장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시장,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준비사항 워크샵 실시 및 일대일 자문 서비스 제공</li> <li>- 국제 무역박람회에 부스 설치</li> </ul> </li> </ul>
국제무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li> <li>- 지역 내 수출기업 홍보</li> <li>- 국제무역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li> </ul> </li> </ul>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시장 현황 파악을 통해 잠재적인 기회 탐색 및 시장진입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가 수출입에 관한 무역 데이터 제공</li> <li>- 지역별 및 부문별 심층 시장분석 수행</li> </ul> </li> </ul>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을 증진시키는 기술, 네트워크 등 제반사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상거래 확대방안 연구</li> <li>- NAFTA 재협상 등 국제무역협정에서 온타리오주 역할 및 대응방안 분석</li> </ul> </li> </ul>

\* 출처: [www.ontario.ca](http://www.ontario.ca)

- 일례로 2015년 온타리오주 농식품부는 중소 식품기업들로 이루어진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림 2-3〉 온타리오주 농식품부 중국방문 대표단 모습



\* 출처: <http://www.omafra.gov.on.ca>

### III 멕시코 파프리카 시장

#### 1. 생산현황

##### 가. 생산규모

- 2016년 멕시코의 고추류 생산량은 약 274만 톤으로 집계
  - 멕시코에서 고추류 생산 및 생산면적은 최근 증가세에 있음
    - 2016년 전 세계 고추류 생산량 중 멕시코 생산량은 약 8%를 차지함

〈표 2-13〉 멕시코 파프리카 생산량 및 생산면적

(단위: ha, 천 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확면적	132,337	140,440	143,979	144,391	136,132	132,910	143,465	148,689	170,135
생산량	2,055	1,942	2,336	2,132	2,380	2,294	2,383	2,390	2,737
세계 생산량	28,115	28,758	29,674	30,243	30,903	31,257	32,125	33,280	34,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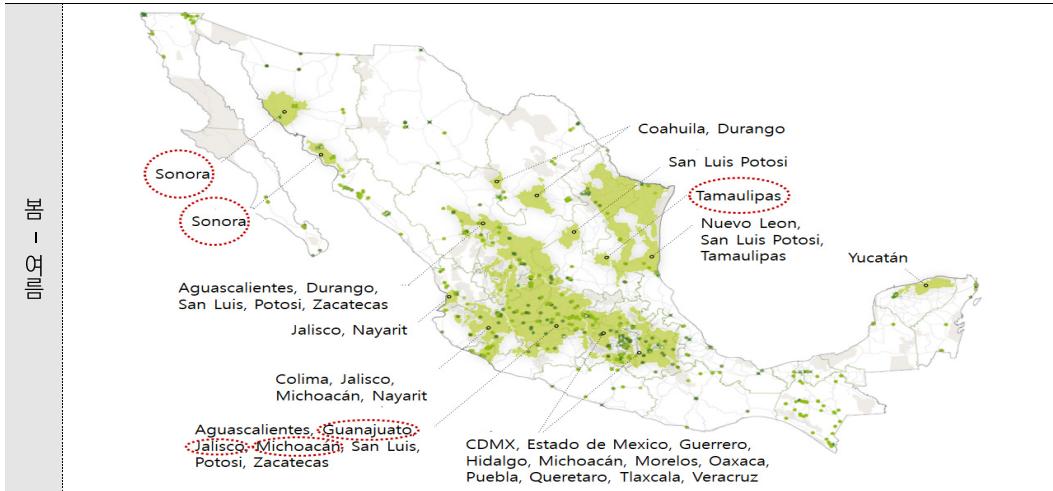
\* 주: 생산량 및 면적은 고추류(Chillies and peppers, green) 기준

\* 출처: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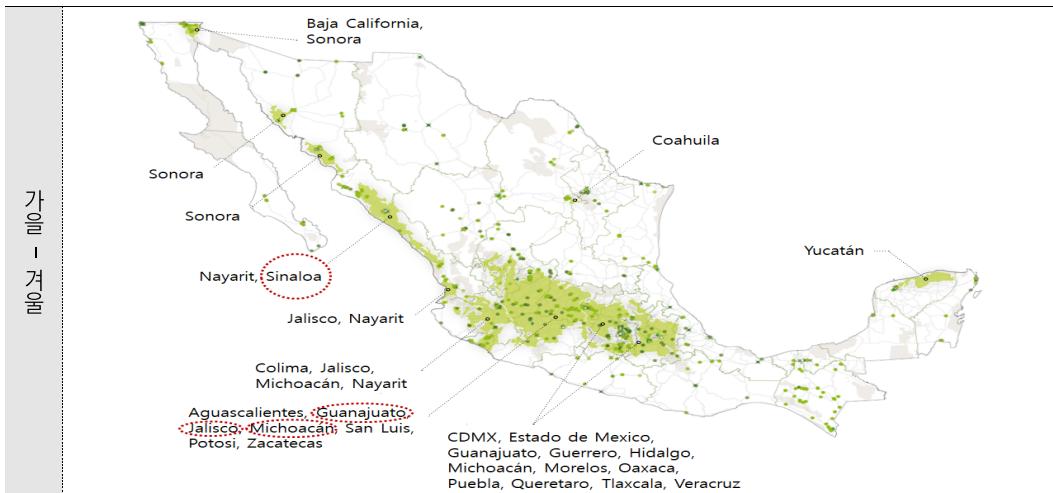
##### □ 멕시코에서 파프리카는 연중 재배됨

-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Jalisco)주, 미초아칸(Michoacan)주, 과나후아토(Guanajuato)주에서는 파프리카가 연중재배됨
  - 계절에 따라 봄·여름에는 북서부의 소노라(Sonora)주와 북동부의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주에서, 가을·겨울에는 북서부의 시날로아(Sinaloa)주에서 주로 생산됨

〈그림 2-4〉 멕시코 내 봄-여름 파프리카 재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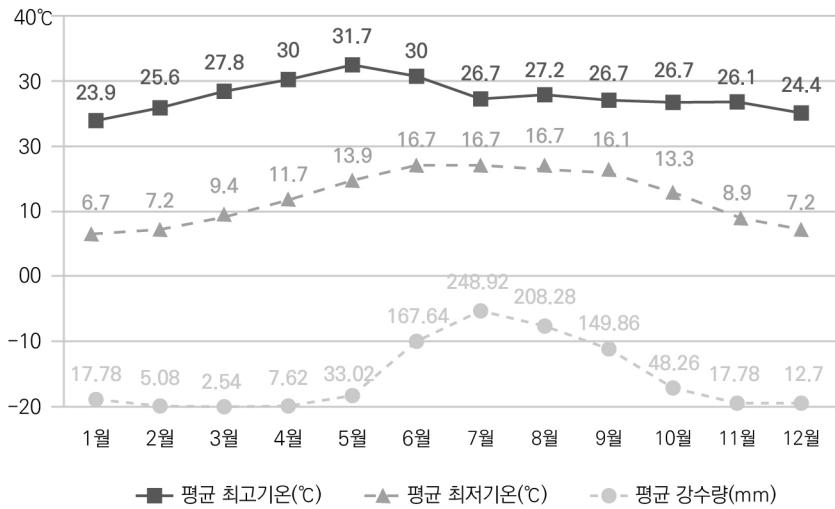
〈그림 2-5〉 멕시코 내 가을-겨울 파프리카 재배지역



\* 출처: 멕시코농수축산농촌개발부(SAGARPA)

- 연중 더운 기후인 멕시코에서 파프리카는 노지재배를 많이 하고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해지는 10월경에 재배 및 출하가 시작됨
  - 최저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커지며, 강수량이 적어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멕시코는 기후는 6~9월이 비교적 일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10~4월 건조한편임

〈표 2-14〉 멕시코 할리스코 주도(州都) 기후



\* 출처: The Weather Channel(weather.com), 2017년 기준

□ 2015년 기준 멕시코의 유기농 채소 재배면적은 11,849ha로, 전체 유기농 작물재배면적의 약 1.9% 차지

- 유기농 파프리카 생산비중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나, 다수의 파프리카 생산업체가 유기농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됨
  - 멕시코의 유기농 채소 재배 농가인 'Floriza en Los Parejas'는 파프리카, 오이, 가지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21㏊에 달함
  - 'Kinchiles'를 비롯해 'Bridges', 'Tomorrow's Organic'과 같은 유기농 채소 재배농가에서도 유기농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공급함
- 할리스코주에 위치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업체인 'Divemex'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에서 유기농 파프리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Divemex'는 멕시코 내 유기농 농산물 수요 증가와 미국으로의 수출확대를 바탕으로 2017년 유기농 파프리카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유망품종으로 예측함

## 나. 품종

- 멕시코의 고추류는 ‘árbol’, ‘habanero’, ‘jalapeño’, ‘anaheim’, ‘chile bell’ 등으로 분류
  - 이 중 ‘chile bell’만 파프리카가 포함되는 단고추에 해당

〈표 2-15〉 멕시코에서 재배되는 고추류 품종

				
chile de árbol	chile habanero	chile jalapeño	chile anaheim	chile bell
고추류	고추류	고추류	고추류	파프리카

\* 출처: 멕시코농수축산농촌개발부(SAGARPA)

## 다. 기관 및 인증정보

-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Agencia de Servicios a la Comercialización y Desarrollo de Mercados Agropecuarios, ASERCA)
  - 멕시코 농수축산농촌개발부(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 SAGARPA)는 자국 농산물의 시장가격 보호 및 판매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91년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ASERCA)을 설립
    - 해당 기관은 농산물 지원금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멕시코 전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보조금 제공
      - 직접직불제도(Programa de Apoyos Directos al Campo, PROCAMPO) 관리<sup>11)</sup>

11) 목차 III-3 멕시코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본문 p20) 참고

□ 멕시코 유기농 인증(Organic SAGARPA Mexico)

- 자국 유기농인증인 ‘Organic SAGARPA Mexico’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SENASICA)에서 자국 내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을 관리
  -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수행한 모든 활동이 국립농식품 위생 무해품질원의 유기농작업지침(Organic Operation Guidelines)을 준수해야함
  - 멕시코 농수축산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인증을 보유한 농지규모는 933㏊로 추정되며 주요 인증 작물로는 커피, 아보카도, 바나나, 망고, 고추류(파프리카 포함) 등이 있음

〈그림 2-6〉 Organic SAGARPA 인증 로고 및 예시



\* 출처: 멕시코농수축산농촌개발부(SAGARPA)

## 2. 수출현황

□ 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은 증감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음

-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액의 반복되는 증감추세로 인해 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약 31% 성장한 5억 8,381만 달러(한화 약 9,489억 3천만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나 2017년에는 다시 10%가량 하락함

〈표 2-16〉 멕시코 파프리카 최근 5개년 수출규모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액	445,527	448,526	446,316	583,808	528,782
수출량	370,089	371,803	384,961	443,861	516,290
단가	1.20	1.21	1.16	1.32	1.02

\* 주: 멕시코 HScode 0709.60-01(단고추)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 멕시코 월별 수출규모

- 평균적으로 12월에서 4월 사이 수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월, 9만 9,188톤을 수출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하락세를 보임

〈표 2-17〉 멕시코 파프리카 최근 3개년 월별 수출규모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99,188	78,339	75,553	57,312	43,118	13,372	13,918	13,244	12,879	20,264	32,169	56,933
2016	60,306	66,453	77,226	54,936	36,555	13,870	12,315	11,719	12,484	13,962	29,357	54,678
2015	67,197	64,355	68,590	42,794	26,179	12,497	10,324	6,689	8,353	10,063	22,782	45,137
3년평균	75,564	69,716	73,790	51,681	35,284	13,246	12,186	10,551	11,239	14,763	28,103	52,249

\* 주: 멕시코 HScode 0709.60-01(단고추)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 멕시코산 파프리카 주요 수출국은 미국

- 멕시코의 파프리카 수출량의 대부분(99.4%)이 인접국인 미국으로 수출됨
  - 2017년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5억 2,554만 달러(한화 약 5,541억 8천만 원)
  - 멕시코와 미국은 1994년 NAFTA 체결 이후 상호보완 거래를 늘려옴
    - 멕시코는 채소, 과일, 맥주류 위주로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은 곡물, 육류, 지방 종자 관련 품목을 멕시코에 수출해옴
  -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324만 5천 달러(한화 약 34억 2천만 원)로 같은 대륙 내에서의 수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와 파프리카 수출 협상단계로 현재 對일본 파프리카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2-18〉 멕시코 파프리카 주요 수출국가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합계	446,316	384,961	583,808	443,861	528,782	516,290	-9.4	16	100	100
1 미국	446,065	384,961	582,025	442,335	525,537	513,063	-9.7	16	99.40	99.37
2 캐나다	252	384,744	1,740	1,498	3,245	3,226	86.5	115	0.60	0.63
3 영국	-	217	-	-	1	0.6	-	-	-	0.02
4 네덜란드	-	-	43	29	-	-	-	-100	-	0.00

\* 주: 멕시코 HScode 0709.60-01(단고추류)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출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3.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 정부의 정책 프레임 개정

- 멕시코 정부는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정책을 6년마다 개정
  - 농업개발계획은 생산성, 경쟁력, 지속가능성,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
  - 현재 농산물 생산지원 제도인 직접지불제도 등이 적용된 농업개발계획 2013-2018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2013-2018) 시행 중

#### □ 농가의 생산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Programa de Apoyos Directos al Campo, PROCAMPO) 실시

- 1994년 도입된 직접지불제도는 작물 재배농가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
  - 농지의 규모(ha)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이며, 생산 작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멕시코 정부는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2014년 해당 제도를 ‘Productive PROAGRO’로 개정
  - 해당 제도는 멕시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완하고 영농 규모화 및 생산 확대를 위해 도입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지 임대료, 농업용수 사용료, 전기료 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단 실제 농작물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어야 함
  - 농업보험강화를 통한 생산자 보호
  - 지원 금액은 한 농가당 최대 100,000페소(한화 약 573만 원)
- 파프리카의 주요 생산지인 할리스코주, 소노라주, 시뇰로아주, 타마울리파스주 등 11개 지역은 보조금 우선 지급, 한도 상향조정 등 우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IV 對일본 파프리카 수출경쟁력 분석

### 1. 일본 파프리카 시장개요

#### 가. 생산현황

##### □ 일본 파프리카 생산량

- 일본 농림수산성(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파프리카 생산량은 약 14만 5,000톤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

〈표 2-19〉 일본 파프리카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5/2016 증가율
생산량	145,000	145,000	140,000	145,000	3.6

\* 주: 2018년 3월 기준 최신 자료

\*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http://www.maff.go.jp))

##### □ 일본에서는 파프리카를 비닐하우스 또는 대형시설에서 재배함

- 비닐하우스에서는 주로 흙을 기반으로 토지재배 하며, 대형시설에서는 수경재배(용액재배)<sup>12)</sup>를 주로 실시함
- 지역별로는 미야기(Miyagi)현은 대형시설에서의 수경재배 중심, 이바라키현은 수경재배 및 토지재배 혼합, 구마모토(Kumamoto)현과 야마가타(Yamagata)현 등은 토지재배를 실시함
- 미야기현, 야마가타현은 냉량기후 지역으로 여름·가을 재배가 많고, 구마모토현이나 미야자키현 등 온난기후 지역에서는 겨울·봄 재배가 주를 이룸

12) 흙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이 크는데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함

## 나. 수입현황

### 1) 관세율

캐나다와 한국산은 3% 부과, 멕시코는 무관세

- 캐나다산과 한국산 파프리카(큰 벨타입) 수입 시 3% 협정세율이 적용됨
- 일본과 멕시코는 FTA체결국가로 멕시코산 파프리카(큰 벨타입)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멕시코 파프리카는 검역협상 진행 단계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2-20〉 일본 파프리카 관세율

(단위: %)

0709.60-010 파프리카	
기본관세	5
WTO 협정	3
멕시코-일본 FTA	0

\* 출처: 일본 재무성([www.mof.go.jp](http://www.mof.go.jp))

### 2) 일본 파프리카 수입현황

파프리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나, 수입액은 증감을 반복

- 2017년 일본 파프리카 수입액은 1억 3,163만 달러(한화 약 1,421억 7,400만 원)로 전년대비 7% 감소
  - 파프리카 수입단가는 2016년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함

〈표 2-21〉 일본 파프리카 최근 5개년 수입규모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150,155	130,401	130,953	142,672	131,634
수입량	33,771	34,268	39,679	40,488	43,608
단가	4.45	3.81	3.30	3.52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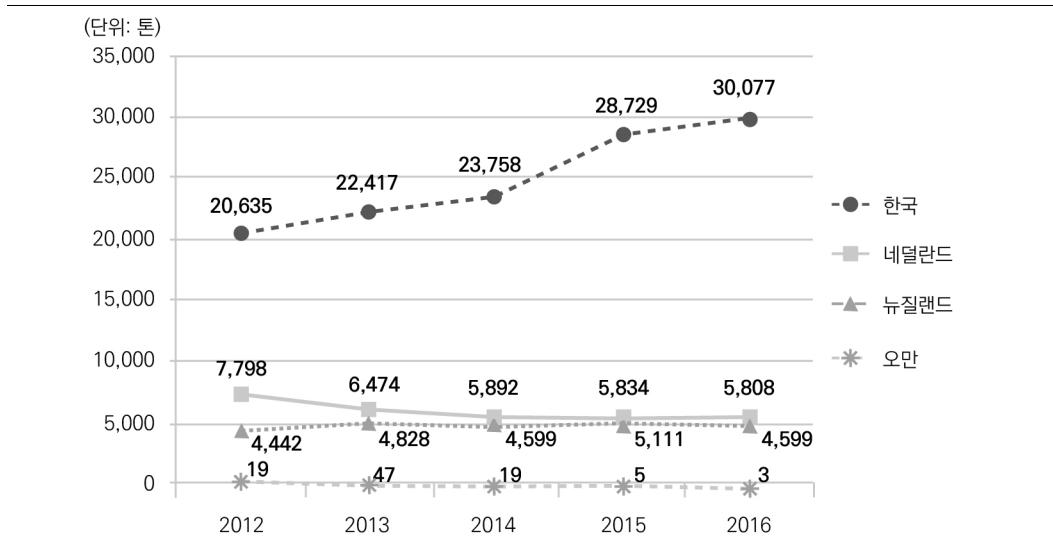
\* 주: 일본의 HScode 0709.60-010(파프리카, 큰 벨타입) 기준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일본 파프리카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비중이 높음

- 2016년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량은 3만 77톤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약 74%를 차지하며, 2위 수입국인 네덜란드산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됨

〈표 2-22〉 일본 파프리카 국가별 수입량 추이



\* 출처: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금액기준 수입실적도 한국산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나, 증감을 반복함
  - 2017년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액은 9,249만 달러(한화 약 999억 1,700만 원)
  -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소폭 하락함
- 캐나다산 파프리카는 2016년 수입되기 시작하여 2017년 수입규모가 대폭 증가함
  -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0.2%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무려 10,500% 증가
  - 2016년 약 1,000달러(한화 약 107만 원)에 불과하던 수입금액 역시 46만 3,000달러(한화 약 4억 9,421만 원)로 9,160% 증가

〈표 2-23〉 일본 파프리카 주요 수입국가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합계	130,953	39,678	142,672	40,488	131,634	43,608	-7.7	7.7	100.0	100.0
1 한국	86,054	28,728	96,777	30,077	92,490	34,303	-4.4	14.1	70.3	78.7
2 네덜란드	23,993	5,834	24,866	5,808	22,901	5,458	-7.9	-6.0	17.4	12.5
3 뉴질랜드	20,882	5,111	21,008	4,599	15,772	3,739	-24.9	-18.7	12.0	8.6
4 캐나다	-	-	5	1	463	106	9,160	10,500	0.4	0.2
5 오만	24	5	15	3	8	2	-46.7	-31.0	-	-

\* 주: 일본의 HScode 0709.60-010(파프리카, 큰 벨타입)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 일본의 월별 수입규모

- 한국산 파프리카의 경우 5~7월과 11~12월에 가장 많이 수입됨
  - 특히 6월이 수입량이 가장 많은 달로 2017년 기준 5,529톤임
- 캐나다산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 시장 수출에 관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2016년 10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함
  - 2016~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캐나다 파프리카는 8~9월에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됨<sup>13)</sup>
- 멕시코산 파프리카는 현재 일본으로 수입이 불가함
  - 일본농림수산성에 수입허가 요청된 상태로, 향후 농산물 시험데이터 조사 및 확인과정이 예정되어 있음

13) 캐나다산 수입이 시작된 이후 2016~2017년의 2개년도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여 월별 유통시기 확정에는 무리가 있음

〈표 2-24〉 일본 파프리카, 최근 3개년 월별 수입규모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캐나다	2017	-	-	-	6	16	18	12	16	23	15	1	-
	2016	-	-	-	-	-	-	-	-	-	0.65	0.7	-
	2015	-	-	-	-	-	-	-	-	-	-	-	-
멕시코	2017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한국	2017	1,524	1,779	3,221	3,618	3,971	5,529	3,959	1,306	1,058	1,575	3,569	3,194
	2016	808	2,065	2,401	3,082	4,127	4,395	3,689	1,675	1,402	1,519	2,088	2,826
	2015	1,578	1,349	1,715	2,982	2,579	4,212	3,777	1,843	1,106	2,238	2,963	2,388

\* 주: 일본의 HScode 0709.60-010(파프리카, 큰 벨타입)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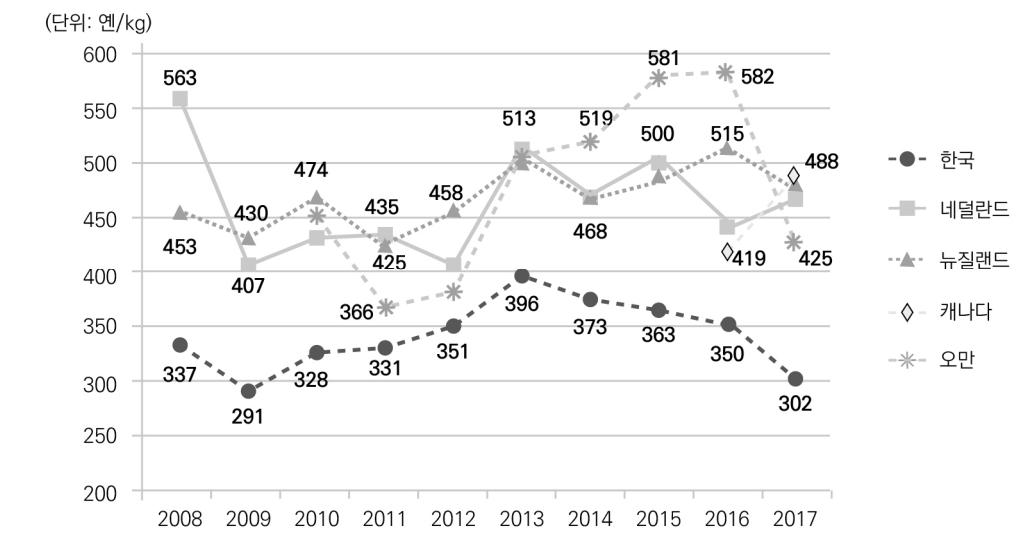
\* 출처: ITC Trade Map

## 2) 일본 파프리카 수입 단가 비교

□ 한국산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산 모두 가격변동이 큼

- 2017년 기준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된 파프리카는 캐나다 산으로 수입단가가 488엔 (한화 약 4,829원)임
  - 한국산은 타 수입산에 비해 운송비 등의 이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한국산 파프리카의 2017년 평균 단가는 kg당 302엔(한화 약 2,988원)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월별로 살펴보면 여름, 겨울 작기가 중복되는 6~7월에 가격이 크게 하락함
- 수입산 파프리카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두 가격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못한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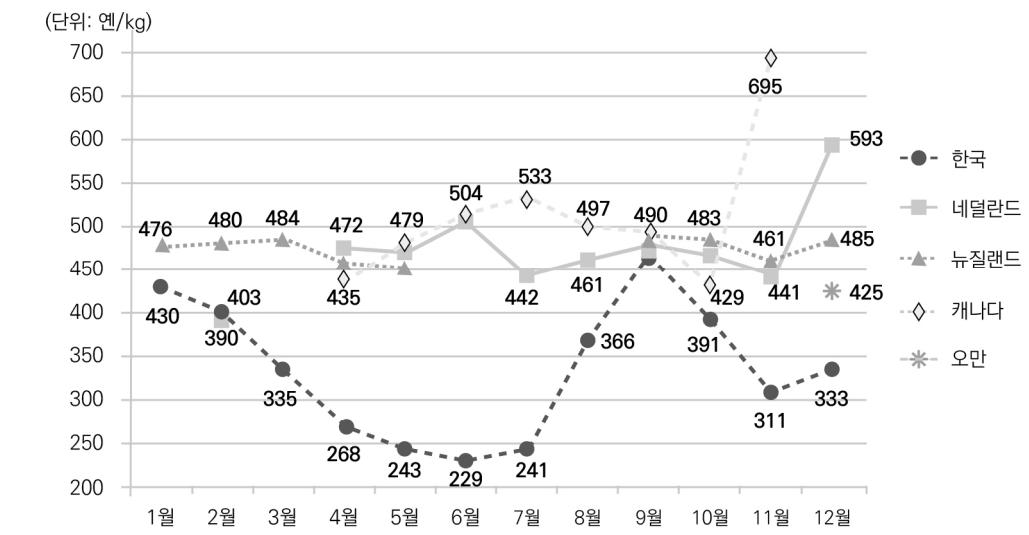
〈표 2-25〉 국가별 파프리카 수입단가 추이



\* 출처: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파악시스템(vegetan.alic.go.jp)

- 캐나다산은 피망 수출량이 많은 6~7월 이후 가격이 떨어지다가, 수출량이 적은 가을 ~겨울에 가격 급등함

〈표 2-26〉 수입산 파프리카 2017년 월별 단가 추이



\* 출처: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파악시스템(vegetan.alic.go.jp)

## 다. 소비현황

###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가구당<sup>14)</sup> 연평균 피망 소비량은 2,101g

- 오코하마市는 연평균 2,871g으로 가장 높은 소비량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토市, 도쿄 특별구(東京都区部) 순으로 높은 소비량을 보임

〈표 2-27〉 2015년~2017년 지역별 평균 피망 소비량

(단위: g)

순위	지역	소비량
-	전국	2,101
1	오코하마市	2,871
2	교토市	2,793
3	도쿄 특별구(東京都区部)	2,651
4	사이타마市	2,621
5	사가미하라市	2,595

\* 출처: 일본통계청 (統計局ホームページ), (<http://www.stat.go.jp>)

### □ 일본 파프리카 선호품종

- 지바현 농림수산연구센터(千葉県農林総合研究センター)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피망의 과육, 당도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 대중적인 파프리카 품종에는 ‘아나스타샤(アナスタシア)’, ‘스위피(ス ウィーピー)’, ‘세뇨리타(セニョリータ)’가 있음

〈그림 2-7〉 일본의 대중적인 파프리카 품종



\* 출처: [www.recipe-blog.jp](http://www.recipe-blog.jp), [www.sai-create.com](http://www.sai-create.com), <http://www.sakataseed.co.jp>

14) 1인 가구 제외

- 현재 3색(빨강색, 노랑색, 주황색) 파프리카가 주로 유통되고 있음
  - 일본인들이 파프리카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색깔’임
  - 네덜란드산 수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빨강색, 노랑색, 주황색, 녹색, 갈색, 보라색 등 총 8색의 파프리카가 판매되었음
    - 이후 빨강, 노랑, 주황 등 총 3가지 색깔의 일본 소비자들의 파프리카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나머지 색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2. 수출경쟁력 비교

### □ 단가비교

- 한국산 파프리카 가격경쟁력 보유
  - 한국산과 캐나다산 모두 수입이 이루어진 2017년의 4~11월 월별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비교 시, 가격차가 가장 적게 나는 달은 9월이며 크게 나는 달은 6월임
  -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단가는 캐나다산 대비 최소 약 5%(9월)에서 최대 55%(6월)까지 저렴함
  - 한국산 파프리카 생산 과정기인 5~7월, 11~12월의 수입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표 2-28〉 2017년 파프리카 월별 수입단가 비교

(단위: 엔,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	430	403	335	268	243	229	241	366	466	391	311	333
캐나다산	-	-	-	435	479	508	533	497	490	429	695	-
수입단가 차이비율(%)	-	-	-	38.4	49.3	54.9	54.8	26.4	4.9	8.9	55.3	-

\* 출처: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파악시스템(vegetan.alic.go.jp)

-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WTO 협상국으로 3%의 동일한 수입관세가 적용됨

- 현재 멕시코산 파프리카는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 시 단가는 약 kg 당 \$1.45가 될 것으로 추정됨<sup>15)</sup>
  - 일본-멕시코 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수입 시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가격경쟁력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표 2-29〉 2017년 국가별 파프리카 수입단가 비교

(단위: 엔, 달러/kg당)

구분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수입단가	¥302(약 3,006원)	¥488(약 4,858원)	\$1.45(약 1,550원)

\* 주: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는 추정치

\* 출처: 일본 농축산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파악시스템(vegetan.alic.go.jp), Global Trade Atlas

## □ 유통가능시기

- 한국산 파프리카는 연중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과잉기인 5~7월과 11~12월의 수입 물량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6월의 수입량이 약 5,529톤으로 가장 많으며, 11~12월 수입량 역시 약 3,000톤 이상이 수입됨
- 캐나다산 파프리카도 연중 수출되고 있으나, 일본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수출되며 9월 물량이 가장 많음
  - 2017년 기준 5월부터 8월까지 10톤 이상의 파프리카를 수입하며, 9월 최대수입량 (약 23톤)을 기록
- 멕시코산 파프리카는 아직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아 정확한 유통시기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멕시코의 파프리카는 연중 생산되지만 최근 3년간 멕시코의 대세계 수출량이 12~4월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의 수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15) 2017년 멕시코산 파프리카 대세계 수출단가, 멕시코(마지널로나항)에서 일본(도쿄 또는 요코하마항)까지의 해상운송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 3개국의 파프리카 유통시기 비교
  - 한국산, 캐나다산의 수입 시기는 거의 동일하며, 캐나다산은 한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9월에 수입이 많으며, 한국산과 수입단가 차이도 타 월에 비해 적음
  - 멕시코산 파프리카는 유통시기를 추정해볼 때, 한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1~3월이 주요 수출시기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30〉 일본의 월별/국가별 파프리카 수입시기 비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					■	■	■				■	■
캐나다									■			
멕시코	■	■	■									

\* 주: 일본의 한국/캐나다 파프리카 월별 수입물량 및 멕시코의 대세계 파프리카 월별 수출량을 바탕으로 산정

-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對일본 수출이 시작되면 한국산 파프리카의 경쟁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멕시코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는 한국산, 캐나다산에 비해 2~3배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멕시코 FTA로 인한 무관세 적용으로 한국산 파프리카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주요 유통시기로 예상되는 12월에서 4월까지는 저렴한 멕시코산 파프리카로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참고자료

### 1. 캐나다 산선 배 수출확대 방안

#### □ 참고문헌

1	Canada Fresh Deciduous Fruit Annual, USDA, 2017.01
2	Canada Fresh Deciduous Fruit Annual, USDA, 2016.01
3	Commercialization of HW623 Pear in Canada, Vineland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2014.12
4	Commercialization of HW624 Pear in Canada, Vineland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 2016.11
5	Fresh Apples, Grapes, and Pears: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2018.06
6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04

#### □ 참고사이트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a href="http://www.fao.org">www.fao.org</a> )
2	캐나다 통계청( <a href="http://www.statcan.gc.ca">www.statcan.gc.ca</a> )
3	비인랜드 연구혁신센터( <a href="http://www.vinelandresearch.com">www.vinelandresearch.com</a> )
4	온타리오주 농림부( <a href="http://www.omafra.gov.on.ca">www.omafra.gov.on.ca</a> )
5	캐나다 JC Bakker and Sons Ltd. 종묘장 홈페이지( <a href="http://www.jcbakker.com">www.jcbakker.com</a> )
6	캐나다 Whiffletree 농장 홈페이지( <a href="http://www.whiffletreefarmandnursery.ca">www.whiffletreefarmandnursery.ca</a> )
7	캐나다 Springtree 농장 홈페이지( <a href="http://www.springtreefarm.ca">www.springtreefarm.ca</a> )
8	캐나다 Green Barn 농장 홈페이지( <a href="http://www.jardinjasmin.com">www.jardinjasmin.com</a> )
9	국제통계기관 Global Trade Atlas 홈페이지( <a href="http://www.gtiis.com/gta">www.gtiis.com/gta</a> )
10	국제무역통계 ITC Trade Map 홈페이지( <a href="http://www.trademap.org">www.trademap.org</a> )
11	미국 농무부( <a href="http://www.usda.gov">www.usda.gov</a> )
12	캐나다 음료 제조기업 Jus Tradition 홈페이지( <a href="http://www.vpj.ca">www.vpj.ca</a> )
13	캐나다 와인 제조기업( <a href="http://www.justfinewine.ca">www.justfinewine.ca</a> )
14	이미지 제공 사이트 Pinterest( <a href="http://www.pinterest.ca">www.pinterest.ca</a> )
15	캐나다 농림부( <a href="http://www.agr.gc.ca">www.agr.gc.ca</a> )
16	캐나다 광고대행사 Kitestring( <a href="http://www.kitestring.ca">www.kitestring.ca</a> )
17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 <a href="http://www.iga.net">www.iga.net</a> )
18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 <a href="http://www.iga.net">www.iga.net</a> )
19	캐나다 식품검사국( <a href="http://www.inspection.gc.ca">www.inspection.gc.ca</a> )
20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 href="http://www.qia.go.kr">www.qia.go.kr</a> )
21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
22	시장분석기관 Statista 홈페이지( <a href="http://www.statista.com">www.statista.com</a> )
23	야후 홈페이지( <a href="http://www.yahoo.com">www.yahoo.com</a> )
24	미국 과일 전문 도매업체( <a href="http://www.specialtyproduce.com">www.specialtyproduce.com</a> )
25	미국 노스웨스트 원예위원회( <a href="http://nwhort.org">http://nwhort.org</a> )
26	농민신문( <a href="http://www.nongmin.com">www.nongmin.com</a> )
27	식품관련 정보제공사이트( <a href="http://www.foodnetwork.com">www.foodnetwork.com</a> )
28	캐나다 식품 블로그( <a href="http://www.foodbloggersofcanada.com">www.foodbloggersofcanada.com</a>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 )

## 참고자료

### 2. 캐나다·멕시코 파프리카 수출여건 조사

#### □ 참고문헌

1	The Mexican PROCAMPO Farmland Subsidy and Its Effectiveness as a Rural Anti-Poverty Program,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7.06
2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7, OECD, 2017
3	Country fact sheet on food and agriculture policy trends, FAO, 2016
4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5, OECD, 2015
5	Mexico Announces Ambitious New 6-year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4
6	Japan'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MOF Japan, 2008

#### □ 참고사이트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a href="http://www.fao.org">www.fao.org</a> )
2	미국 농무부( <a href="http://www.usda.gov">www.usda.gov</a> )
3	캐나다 정부( <a href="http://www.canada.ca">www.canada.ca</a> )
4	캐나다 통계청( <a href="http://www.statcan.gc.ca">www.statcan.gc.ca</a> )
5	캐나다 농림부( <a href="http://www.agr.gc.ca">www.agr.gc.ca</a> )
6	캐나다 식품검사국( <a href="http://www.inspection.gc.ca">www.inspection.gc.ca</a> )
7	캐나다 유기농 재배협회, COG( <a href="http://www.cog.ca">www.cog.ca</a> )
8	캐나다 원예위원회( <a href="http://www.hortcouncil.ca">www.hortcouncil.ca</a> )
9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a href="http://www.ontario.ca">www.ontario.ca</a> )
10	캐나다 온타리오주 농림축산식품부( <a href="http://www.omafra.gov.on.ca">www.omafra.gov.on.ca</a> )
11	캐나다 온타리오 과일 및 채소 재배협회( <a href="http://www.ofvga.org">www.ofvga.org</a> )
12	캐나다 알버타주 농림수산부( <a href="http://www1.agric.gov.ab.ca">www1.agric.gov.ab.ca</a> )
13	멕시코 농림수산부( <a href="http://www.sagarpa.gob.mx">www.sagarpa.gob.mx</a> )
14	멕시코 정부기관 통합 포털( <a href="http://www.gob.mx">www.gob.mx</a> )
15	멕시코 농업판매지원서비스기관, ASERCA( <a href="http://www.aserca.gob.mx">www.aserca.gob.mx</a> )
16	일본 농림수산성( <a href="http://www.maff.go.jp">www.maff.go.jp</a> )
17	일본 종무성 통계국( <a href="http://www.stat.go.jp">www.stat.go.jp</a> )
18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채소정보종합파악시스템( <a href="http://vegetan.alic.go.jp">vegetan.alic.go.jp</a> )
19	세계날씨채널( <a href="http://www.weather.com">www.weather.com</a> )